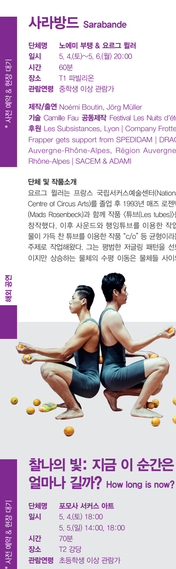
사라방드 Sarabande

단체명 노에미 부텔 & 요르그 밀러
일시 5. 4.(토)~5. 6.(월) 20:00
시간 60분
장소 T1 파빌리온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작/출연 Noémi Boutin, Jörg Müller
기술 Camille Flau **공동제작** Festival Les Nuits d'été
후원 Les Subsistances, Lyon | Company Frotter Frapper gets support from Festival Les Nuits d'été Auvergne-Rhône-Alpes, Région Auvergne-Rhône-Alpes | SACEM & ADAMI



단체 및 작품소개
요르그 밀러는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National Centre of Circus Arts)를 졸업 후 1993년 매즈 로젠벡(Mads Rosenbeck)과 함께 작품 (튜브(Les tubes))를 창작했다. 이후 사운드와 행잉튜브를 이용한 작업, 물리 기둥 전 퍼포먼스 이후한 작품 "Lo" 등 공장이라는 주제로 작업해왔다. 그는 평범한 지금껏 패턴을 상보 이지만 상승하는 물체의 수평 이동은 물체를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유발한다. 또한, 그는 순수한 신체적인 퍼포먼스의 연구, 무용 및 현대 미술을 조화시키는 서커스 예술가이다.

노에미 부텔은 14살에 프랑스 최고의 음악학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성대한 연예를 벌인시키다. 그는는 트리오 부텔(Boutin)과 트리오 베레(Ceres) 활동으로 실내악에 대한 음악적 소양을 드러내고, 오늘날 다양한 예술가와 함께 일하며 술리스트 보면의 활동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예술적 모험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작품에서 바르도 첼로모음곡 제1번, 3번, 5번으로 귀결 되는 상부작의 성세함과 무한한 우아함을 표현한다. 그녀의 음악은 서커스, 예술가이자 무용수인 요르그 밀러가 생서하는 세 개의 시각적 장면들과 위석이며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단체 및 작품소개
포포사 서커스 아트는 대한민 현대 서커스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아크로바틱과 거리문화 그리고 국전예술을 결합하여 독특한 신체적 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뱀바붐은 아크로바틱, 저글링, 무용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나의 빛: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길까?》는 에르빈 부름(Erwin Wurm)의 작품 '1분짜리 조각' 시리즈의 컨셉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 팀 서커스가 추구했던 놀라운 신체의 감각적 지각이라는 서커스의 전통에 반하여, 이러한 전통을 뒤집기 위해 일상적인 일수용들과 신체의 활동하고 우스꽝스러운 묘작임을 사용한다. 웃김이, 양동이, 대걸레, 물이병, 장롱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체들은 전통적인 저글링 공, 클럽, 스태프, 후프를 대신하여 오브제와 신체 사이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물체의 외형과 재질 심지어 물체의 정의를 바꿔나간다.

음악디자인 Chih-Hao KE **조명디자인** Fang-yu GUO
의상디자인 Ping-Hao LIN **무대감독** Fang-yu GUO
투어매니저 Tai-Jung YU **후원**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Taipei City Government, Taiwan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단체 및 작품소개
포포사 서커스 아트는 대한민 현대 서커스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아크로바틱과 거리문화 그리고 국전예술을 결합하여 독특한 신체적 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뱀바붐은 아크로바틱, 저글링, 무용과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나의 빛: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길까? How long is now?

단체명 포포사 서커스 아트
일시 5. 4.(토) 18:00
5. 5.(일) 14:00, 18:00
시간 70분
장소 T2 강당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프로듀서 Chih-Wei LIN **감독** Baboo LIAO
출연 Kuan-Ting CHEN, Ching-Te KUO, Yuan-Yang LO, Chao-Ming HUANG, Yue-Wei HSU, Chia-Hao HU, Wei-Chen CHAO **음악감/안무** Tsung-Hsuan LEE **무대디자인** Chi-Tsung WU

이노센스 Innocence

단체명 라 시 위 부르룬
일시 5. 4.(토) 15:00, 18:00
5. 5.(일) 15:00
시간 55분
장소 서커스텐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창작/출연 Elisa Bouchez & Philippe Droz
안무 Dominique Duszynski **서커스/음악/백팩 어시스턴트** Benji Bernard **무대/의상디자인** Aline Breucker **조명디자인** Léonard Clarys **무대기술** Valentin Bouca **영상** Tom Boccara **예술자문** Catherine Magin **세트디자인/제작** Andreas Ketels

단체 및 작품소개
2016년 브뤼셀 서커스 예술학교 (Superior School of Circus Arts of Brussels)를 졸업한 핸드투핸드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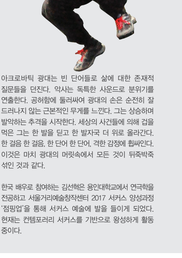
사랑의 숨결 La Brise de la Pastille

단체명 갈라피아 서커스 / 모이즈 베르니에, 니콜라 로페즈
일시 5. 4.(토) 16:00
5. 5.(일) 15:00, 18:00
5. 6.(월) 16:00
시간 45분
장소 T2 알

창작/제작 Moïse Bernier **음악** Nicolas Lopez
한국배우 김선혁Kim Sun Hyuk) **제작/투어 매니저** Marine Freslon **기획/행정** Yvain Lemattre
제작 Galapiat Cirque **후원** DRAC Bretagne, Conseil Régional de Bretagne, Conseil Départemental des Côtes d'Armor, Saint-Brieuc Agglomération, Marie de Langueux-Le Grand Pré, Institut Français, DGCA-Aide à l'itinérance

단체 및 작품소개
모이즈 베르니에는 갈라피아 서커스의 창단 예술가 중 한명으로,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National Centre of Circus Arts)를 졸업했다. 그는 갈라피아 서커스의 작업 뿐 아니라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축제한 것들을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본졸하며 다양한 행퍼의 차이나조 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탐구한다. 차이나조 몸 위의 얇지 부셔와 밸런 드로조는 무대를 모든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서커스를 보편 언어로서 간주하며 이크로바틱, 무용, 연극과 음악을 통해 감정을 테크닉적인 기량 이상의 의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 시 위 부르룬이 창작한 첫 번째 작품 《이노센스》는 핸드투핸드와 공중 아크로바틱 기술에 한뿔이에는 서커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그녀나 여자는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미래의 한명 사이 어딘가 불안정한 상태에 갇혀있다. 그녀는 기억과 과거가 기대이라 사이에서 과거로 되돌아가길 혹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그녀 자신만의 영겁고리를 만든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늙어갈까?" 그 동안 남자는 오래된 기억과 갈뿌림을 연상시키는 텔레비전 오보겨터 거리를 돈다. 그녀를 천천로 되돌아놓기 위해 현실과 공상의 세계를 여행한 후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서 떨어오고 꿈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토리 서커스_根(뿌리) Story Circus_根(root)

단체명 안재근
일시 5. 5.(일) 20:00
5. 6.(월) 15:00, 19:00
시간 35분
장소 서커스텐트
연출/출연 안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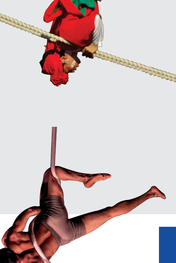
단체 및 작품소개
안재근은 서커스 가족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에게 공연, 무용, 연출, 저글링, 이크로바틱, 줄타기, 판토마임, 공중곡예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전수 받아 근대 서커스의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 곡예사이다.

이 작품은 나의 서커스 인생의 이야기이다. 나는 서커스 가족의 장남으로 8학 국장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 기술을 전수 받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눈팔지 않고 곡예사로 살아왔다. 50번째의 지도 지금 이 여정의 끝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서커스를 하기에는 많은 나이지만 아무리 생각 해봐도 나는 곤재을 사랑하고 서커스를 하는 것 보다 더 행복한 것 없는 것 같다.

나는 곡예사 '안재근'이다.

태움 BURN

단체명 봉연홀
일시 5. 5.(일) 18:00
5. 6.(월) 17:30
시간 30분
장소 서커스텐트
연출/출연 안재현 **피아노** 문용
라이브DJ 신진한 **영상/음향** 김민선



단체 및 작품소개
서커스창작자인 봉연홀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안재현이 창단한 단체로 주로 봔(Chinese Poi)과 줄(Tight Wire)을 활용한 기예 작업을 한다.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상이지만 상징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해태로 토피아(Haterro-topia)라고 하는데 서커스 기예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통해 무대 위 '해테로토피아'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

우린 서로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지쳐하며 다시 줄타기자만 해갈은 행위로 인해 또 떨어지고 만다. 줄타기와 같은 일상의 관계 맺기 그리고 관계 맺기와 같은 일상적인 줄타기. 그것들의 반복, 그 모습이 미치 실의 몸부림과 닮아 있는데 그 지점에서 나를 떨에 태워 날려 없애고, 내 몸을 줄에 태워보면 어떻까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해 줄타기는 시작된다.

쌍줄타기 Double Tightrope

단체명 줄타기 권현태 연희단
일시 5. 5.(일) 14:00
5. 6.(월) 18:00
시간 50분
장소 야외마당

줄타기 권현태, 유진호 **어릿광대** 정준태
태평소 박철순 **쟁과** 김정주
장 시종현 **장구** 윤일보리, 김재기
북 최병진, 주병연

단체 및 작품소개
줄타기 권현태 연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어름사니 권현태 명인이 2006년 창단한 단체이다. 권현태는 영화 '광의 남자'의 줄타기 지도 및 출연으로 줄타기의 예술성을 한층 높여 놓았으며, 미국 세계줄타기 대회 우승, 서울한강세계줄타기 총연출, 남사당줄타기 기예스쿼 등재 등 세계가 인정하는 실력가이다. 줄타기 공연이라 아니라 다양한 전통연희가 지닌 우리고유의 정의 흥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남사당의 줄타기를 새롭게 구상한 작품이다. 줄타기는 공중에 연 줄 위에서 재담과 발림을 섞어기에 깊기지 재주를 발이는 공연이다. 보통 외줄을 잡아놓고 연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연이지만, 이 작품은 두 명의 어릿광니인 권현태 명인과 제자인 유진호가 공연장에 두 개의 줄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재주를 펼친다. 또한 풍물놀이, 버나놀이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전통연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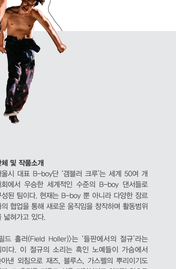
숫대쟁이놀이 Sotdaejaengi Nori

단체명 숫대쟁이놀이 보존회
일시 5. 5.(일) 17:00
5. 6.(월) 14:00
시간 50분
장소 야외마당

보존회장 김선옥 **출연** 김선옥, 강경진, 김동현, 김일이, 김태일, 김한준, 김현승, 문학동, 박종호, 오상훈, 오정훈, 유진, 지지원, 장구철, 정상재, 정은진, 지혜진, 한승민, 황희준 **공장감독** 박종문

단체 및 작품소개
숫대쟁이놀이 보존회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해산한 숫대쟁이패(1800년대 진주지역을 본거지로 하던 전문 예인집단)의 놀이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 '숫대쟁이패 복원 추슬 발기모임'을 기점으로 2014년 보존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숫대쟁이패라는 명칭은 이 패거리들이 놀이판을 꾸밀 때 한구석에 숫대와 같은 긴 장대를 세운 뒤 그 꼭대기 로부터 양팔으로 두 가닥씩 내 가닥의 줄을 놓아놓고 그 위에서 몇 가지 재주를 부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요 놀이종목으로는 숫대타기, 쌍줄타기줄 중심으로 '죽방울 놀이', '살판', '버나', '얼른', '봉물판굿', '낫진놀', '병신굿놀이' 등이 있다.



초인의 비상 Superman Fly in the Sky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 (동춘서커스)
일시 5. 4.(토)~5. 5.(일) 19:00
시간 60분
장소 T2 야외무대

사회 안부연 **연출** 정강두
출연 왕호, 이민, 송성룡, 진지영, 진지광, 연소소, 갈명, 하군과, 곡홍, 곡명, 곡명2, 왕사, 양호, 유화선, 신원, 이지원, 염서진, 곡사연, 서윤주, 장이명, 이선, 공상우

단체 및 작품소개
사단법인 한국곡예협회(동춘서커스)는 우리나라의 곡예예술 단체로서 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춘서커스는 1925년에 창단돼 사민들의 삶과 애환, 고통, 기쁨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서커스 공연단이자 국내 최장수 공연단체이다.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위주 서커스에 예술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곡예, 무용, 마술, 음악이 결합된 기예가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인간이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미적 감각과 초인적인 힘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이다.

우주고래 A Lonely Whale in the Space

단체명 공연창작집단 사람
일시 5. 4.(토) 14:00
5. 5.(일) 16:00
시간 30분
장소 T6 목상마루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연출/출연 사상한 **음악감독** 강현우, 하철주
기획 이한정 **공연감독** 사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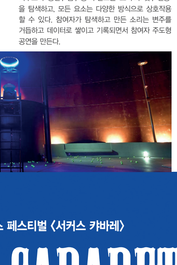
단체 및 작품소개
공연창작집단 사람(A PERSON:S)은 신체행위예술을 중심으로 한 종합예술을 통해 거대한 철학적 관념 제시가 아닌 독료적이고 일상은 행위의 직접적인 실천을 목표로 한다. 한대는 서커스의 신체언어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나'와 같은 현재의 '너'의 이야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뒤에는 '외로우이'라는 흔터가 남기도 한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각자 다른 스카치로 인해 계속해서 새생되어 우리를 괴롭힌다. 삶게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독감고 지워한 씨앗 속에서 마치 '우주 속에서 홀로 하우적거리는 외로운 고래 한 마리'가 되어버린 것다. 이 작품은 공중밧줄 (Aerial Rope)을 중심모브로 사용하여 '외로우이'와 그 개인과 삶의 이야기를 표현한 자고기법적 작품이다.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s

단체명 힐클라운
일시 5. 4.(토) 17:00
5. 6.(월) 17:00
시간 40분
장소 야외테크

연출/출연 안동윤



단체 및 작품소개
힐클라운은 즐거운 공연을 배달하는 광대이다. 새롭고 즐거운 기다리는 창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객이 깔깔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또한 감동받을 수 있는 소통 선물이 되기 위해해달 수 있도록 계속하여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경상도스러운', '경상도 스러운의 비눗방울', '경상도 처럼 생긴 비눗방울', 그 비눗방울에 희망을 담아 이야기 한다. 비눗방울에 담긴 꿈같은 이야기. 그러나 작품이 너무 어렵고 집중할 수 없어 작품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즐겁고 재미나다. 그렇다. 그냥 잊어서 행복을 느끼면 된다.

필드 홀러 Field Holler

단체명 서울시 대표 B-boyEr '경블러 크루'
일시 5. 4.(토) 19:00
5. 6.(월) 19:30
시간 40분
장소 야외테크

연출 류장현
출연 박지훈, 장수용, 홍성식, 성슬용, 손석표, 박민수
운영 오경호 **현장운영** 김지환, 이준학 **음향오퍼** 이정섭

단체 및 작품소개
서울시 대표 B-boyEr '경블러 크루'는 세계 50여 개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수준의 B-boy 댄서들로 구성된 팀이다. 한재는 B-boy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창작하여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필드 홀러(Field Holler)》는 '들판에서의 절규'라는 의미다. 이 절규의 소리는 혹인 노예들이 가슴에서 쏟아낸 외침으로 재즈, 블루스, 가스펠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 혼재된 자부고 삶은 가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원는 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틀(Battle)이라는 경쟁을 내건 비보잉을 불 때면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사회의 한 단면 같기도 하면서 자유를 정하하고자하는 절은이들의 저항 정신도 느껴진다.

지.라운드 G.Round

단체명 창작그룹 노니
일시 5. 4.(토)~5. 6.(월)
13:00~18:00 (5회차)
시간 50분
장소 T4

연출 김경희 **드라마투르그** 이미경
인터랙티브 사운드/라이트 도재호
인터랙티브 사운드/라이트 오퍼레이터 김보영
프로덕션 매니저 김민경
프로듀서 최정인
현장진행 곽소민, 정주재 외

단체 및 작품소개
2006년 무대 미술, 전통 연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한국 연희 미학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창작그룹 노니는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유닛을 구성하여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과 물질, 몸의 묘동성가능에도 미학에 집중하여 공간과 오브제에 대한 탐색과 따무로, 서커스, 동과의 합업을 통한 장소 특정형 작업을 하고 있다.

공연의 주제를 배우에서 장여자로 바꿔 공간의 특성과 공의 물질성을 스스로 탐색하여 장여이는 설치 공연이다. 공연의 장여자는 하늘 (2m~5m) 정도 지유롭게 머무르며 '공간', '몸', '공'이 만드는 '소리'와 '빛', '진동'을 탐색하고, 모든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장여자가 탐색하고 만든 소리는 변주를 거듭하고 데이터로 쌓이고 기록되면서 장여자 주도형 공연을 만든다.

서커스 올림픽 Circus Olympics

단체명 서커스 디 캠
일시 5. 4.(토) 14:30, 20:00
5. 6.(월) 15:30
시간 30분
장소 야외테크

연출/출연 이준상, 황시웅
무대스태프 김보미, 이재빈, 한동윤

단체 및 작품소개
서커스 디 캠은 서커스 드라마 연구소의 약자로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현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에시지를 담아 보여주고자 한다. 단순한 기예를 넘어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현대 서커스를 지향한다.

오랜 트레이닝의 끝에 드디어 우리는 서커스 올림픽 무대에 선다. 5대륙의 활합을 상징하는 5개의 각기 다른 색깔의 힘, 성화,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 힘찬부터 테니스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서커스로 재해석된 인류 화합의 상징, 서커스 올림픽 서커스와 올림픽 스포츠를 넘나드는 박진감 넘치는 두 남자의 경쟁이 시작된다.

2019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CIRCUS CABARET

5. 4.(토) - 5. 6.(월) | 문화비축기지

문의 02-336-5724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주최/주관 I·SEOUL·U 서울시설공단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협력 문화비축기지 후원 FRENCH FESTIVAL IN SEOUL

5월 4일 토요일 일정표

공연 전시 학술/체험

	사전 예약 & 현장 대기						자유관람				현장 접수
	T1 파빌리온	T2 강당	T4	T6 옥상마루	T6 에코라운지	서커스텐트	T2 아외무대	T2앞	야외대크	야외마당	서클라운지
13:00			지라운드 (1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1회차)						서커스 예술놀이터 (1회차)
13:30											
14:00			지라운드 (2회차)	우주고래(30')	리사치: 서커스 / 연희 (2회차)						서커스 예술놀이터 (2회차)
14:30									서커스 올림픽(30')		
15:00			지라운드 (3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3회차)	이노센스(55')					서커스 예술놀이터 (3회차)
15:30											
16:00			지라운드 (4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4회차)			사랑의 숨결(45')			서커스 예술놀이터 (4회차)
16:30											
17:00			지라운드 (5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5회차)				경상도 비보방울 (40')		
17:30											
18:00		찾나의 빛: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깊까? (70')				이노센스(55')					
18:30											
19:00							초인의 바상 (60')				
19:30											
20:00	사라캠드(60')								서커스 올림픽(30')		
20:30											

5월 5일 일요일 일정표

공연 전시 학술/체험

	사전 예약 & 현장 대기						자유관람				현장 접수
	T1 파빌리온	T2 강당	T4	T6 옥상마루	T6 에코라운지	서커스텐트	T2 아외무대	T2앞	야외대크	야외마당	서클라운지
13:00			지라운드 (1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1회차)						서커스 예술놀이터 (1회차)
13:30											
14:00		찾나의 빛: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깊까? (70')	지라운드 (2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2회차)					쌍줄타기(50')	서커스 예술놀이터 (2회차)
14:30											
15:00			지라운드 (3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3회차)	이노센스(55')		사랑의 숨결(45')			서커스 예술놀이터 (3회차)
15:30											
16:00			지라운드 (4회차)	우주고래(30')	리사치: 서커스 / 연희 (4회차)						서커스 예술놀이터 (4회차)
16:30											
17:00			지라운드 (5회차)		리사치: 서커스 / 연희 (5회차)					슬라클라이(50')	
17:30											
18:00		찾나의 빛: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깊까? (70')				태몽(30')		사랑의 숨결(45')			
18:30											
19:00							초인의 바상 (60')		월드 홀리(40')		
19:30											
20:00	사라캠드(60')					스토리 서커스 _뫼뿌리 (35')					
20:30											

5월 6일 월요일 일정표

공연 전시 학술/체험

	사전 예약 & 현장 대기					자유관람			현장 접수
	T1 파빌리온	T4	T6 현행희의실	T6 에코라운지	서커스텐트	T2앞	야외대크	야외마당	서클라운지
10:00									
11:00									
12:00			라운드 테이블						
12:30									
13:00		지라운드 (1회차)		리사치 : 서커스 / 연희 (1회차)					서커스 예술놀이터 (1회차)
13:30									
14:00		지라운드 (2회차)		리사치 : 서커스 / 연희 (2회차)				숏대쟁이놀이 (50')	서커스 예술놀이터 (2회차)
14:30									
15:00		지라운드 (3회차)		리사치 : 서커스 / 연희 (3회차)	스토리 서커스 _뫼뿌리 (35')				서커스 예술놀이터 (3회차)
15:30							서커스 올림픽(30')		
16:00		지라운드 (4회차)		리사치 : 서커스 / 연희 (4회차)		사랑의 숨결(45')			서커스 예술놀이터 (4회차)
16:30									
17:00		지라운드 (5회차)		리사치 : 서커스 / 연희 (5회차)			경상도 비보방울 (40')		
17:30					태몽(30')				
18:00								쌍줄타기(50')	
18:30									
19:00					스토리 서커스 _뫼뿌리 (35')				
19:30									
20:00	사라캠드(60')						월드 홀리(40')		
20:30									

오시는 길

문화비축기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661)

버스
- 월드컵경기장 서측 문화비축기지 정류장 – 7715, 7019, 6715, 571, 710, 9711A
- 월드컵경기장 북측 정류장 – 171, 710, 673, 172, 7016, 7730, 7711, 9711A
- 월드컵공원 입구, 문화비축기지 입구 정류장 – 7715, 271, 마포08, 7011, 7013A, 고양733, 7013B

지하철
-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서 10분 도보로 이동

자가용
- 내비게이션에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 661)로 검색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행사기간 중 문화비축기지 내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차량 이용 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시

리서치 : 서커스 / 연희

단체명 창작그룹 노니
일시 5. 4.(토)~5. 6.(월)
13:00~18:00 (5회차)
장소 T6 에코라운지

연출 김경희 **리서치** 이미경, 김민경, 김보람, 곽소민
프로듀서 최봉민

단체 및 작품소개
2006년 무대 미술, 전통 연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한국 연희 미학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창작그룹 노니는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운낭을 구성하여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과 물질, 몸의 운동성과 가내적, 미학에 집중하여 공간과 오브제에 대한 탐색과 파무르, 서커스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장소특정형 작업을 하고 있다.

서커스와 연희의 국내외 종사자, 그리고 장재 관객인 비종사자들 개인의 기억들을 인터뷰를 통해 채록하고 자료로써 수집하였다. 인터뷰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수렴은 상상력이 발동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QR코드를 통한 사운드 파일로, 기타 수집 자료들은 상황에 따라 이미지, 영상, 책 등의 형태로 관객들에게 공유되고 이 자료들은 다시 다양한 체험기 되어 관객 개인에 따라 치유요운 이야기의 상상을 돕는다.

* 사진/영상 & 현장감기

서커스 예술놀이터

일시 5. 4.(토)~5. 6.(월) 13:00~16:40 (4회차)
장소 서클라운지
내용 엄마, 아빠, 아이들, 연인들 모두 함께 서커스 미포머가 되어보는 시간!
기예와 놀이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

체험기예 구름까지 올라! **공중곡예** / 아찔아찔 건너서! **줄타기** /
우리 모두 서커스! **저글링, 접시돌리기, 페달고, 죽마체험 등**

참여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단, 안전상의 이유로 5세 미만 참여 불가)
참가비 무료
준비물 움직임이 편한 복장 및 신발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참여방법 체험 당일 현장 접수 *선착순 마감
운영시간표

구분	1회	2회	3회	4회
운영시간	13:00~13:40	14:00~14:40	15:00~15:40	16:00~16:40
참여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 상기 내용은 현장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커스 예술놀이터 프로그램

나도 서커스타

서커스 기예를 활용해 서로의 상력을 겨뤄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새로운 소질과 흥미의 발견 알고 보면 나도 서커스타!

일시 5. 4.(토)~5. 6.(월)
장소 행사장 곳곳

서커스 – 왜? 어떻게? 어디로?

북미, 유럽과 비교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기반이 취약하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서커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커스 예술 장르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서커스 예술가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반은 취약하여 컨템포러리 서커스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이번 포럼은 서커스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서커스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자리이다.

주최 (재)서울문화재단
주관 (재)서울문화재단, 프로듀서그룹 도트
후원 Québec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

1. 라운드 테이블 (*영어 순차통역)

일정 2019. 5. 6.(월) 10:00~14:00
장소 T6 현행희의실

RT 1) 서커스와 커뮤니티
모더레이터 Michiko Tanaka
(Setouchi Circus Factory / 일본)

RT 2) 다원/융합적 관점에서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창작
모더레이터 Tai-Jung Yu (Formosa Circus Art / 대만)

2. 오픈 포럼 & 네트워킹 리셉션 (*불어/영어 동시 통역)

일정 2019. 5. 7.(화) 10:00~17:00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발제 1. 왜?_서커스 예술의 가치
모더레이터 최석규 (아시아나구)
발제자 이성형 (마린보이), Catherine Magis (Espace Catastrophe / 벨기에), Jörg Müller (Noémi Boutin & Jörg Müller / 독일), Osman Khawaja (Phare Ponleu Selpak, Brightness of the Arts / 캄보디아), Y-Chun Chen (Kaohsiung Center for the Arts /Weiwuying / 대만)

발제 2. 어떻게?_동시대 서커스 창작 방법론
모더레이터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발제자 Matthew John Hughes (Circus OZ / 호주)
토론자 이재현 (불어통역), 정성태 (화이트 큐브), Moïse Bernier (Galapiat Cirque / 프랑스), Baboo Liao (Formosa Circus Art / 대만)

발제 3. 어디로?_동시대 서커스의 역할
모더레이터 황혜신 (독립 프로듀서)
발제자 Stéphane Lavoie (Tohu / 캐나다)
토론자 조동희 (서울문화재단), 김경희 (창작그룹 노니), Julien Couzy (Noémie Boutin & Jörg Müller / 프랑스), Michiko Tanaka (Setouchi Circus Factory / 일본)

* 서커스 컨퍼런스 프로그램

'서커스 카바레'를 만든 사람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희
예술창작본부장 임미혜
예술축제팀장 서경구

예술감독 조동희
기획/총괄 우상욱, 류한경, 정옥영, 한상경
공연 주수연
홍보 이현정
기술 유성희, 김지연
운영 임지민, 배영식

프랑에이
총괄 강기영
운영 최은혜, 김소연, 김경은, 이재용, 김려진, 김유진
기술 주광택, 서상혁, 정의석, 이수경
홍보 홍성이, 오윤미

함께 하신 분들
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사진 스튜디오 K2라이
영상 아이맵 스튜디오
서커스텐트 제공 날다퀘토리

주최/주관 I·SEOUL·U 서울문화재단
협력 문화비축기지
후원 INSTITUT FRANÇAIS